

'4전 5기' 여수~남해 해저터널 뚫는다

정부 예타 통과...2029년 개통 목표, 총 연장 7.31km·사업비 6824억 전남도내 6개 사업 1조6104억원 반영...미흡 기반시설 보완 기대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4전 5기' 끝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경남 남해군 서면과 전남 여수시 상암동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여수~남해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사업은 과거 4차례나 예타에서 탈락했다. 전남도내 추포-비금 연도교 등 6지구 등 국도 4곳, 국지도 2곳 등 모두 6개(사업비 1조6104억원)가 반영되면서 미흡했던 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국도·국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조사수행기관으로 경제성분석을 진행했다. 종합평가(AHP) 결과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이번 5차 국도·국

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최초로 지난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사업 중 36개가 예타를 통과했다. 경제성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면서 예타 통과율이 38.7%로 지난 4차 일괄 예타(15.9%)보다 상승했다.

수도권지역 사업은 국도 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교 구간과 양평 육전-가평 설악 구간 등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이번에 5번째 도전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해저터널 사업은 총 사업비 6824억원 규모이며, 총 연장 7.31km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3827억원이 투입될 국도 2호선 신안군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외에 국도는 ▲고흥 영남~팔영 개량(14.0km, 691억원) ▲신안 신석-단곡 개량(9.12km, 582억 원) 등 2곳을 포함해 4개 사업(사업비 1조1924억원)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지도 사업으로는 ▲장성 동화-서삼 신설(5.98km, 1325억원) ▲나주 금천-도암 신설(12.0km, 2855억 원) 총 2지구(4180억원)가 최종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타 통과



할 수 있게 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많은 사업이 반영된 것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며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더 많은 국민이 더 빨리" 백신 접종계획 보완

김총리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 확산세... 선제검사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서 좀 더 빨리 백신을 맞으실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한층 가속화되면서 염원하던 일상 회복의 길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미국 모더나 분사 방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9월 초까지 701만회분의 모더나 백신 도입이 확정됐고, 일부 물량은 어제 국내에 도착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들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확진비율이 13.6%까지 높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세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일터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현장점검도 한층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에게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검사와 예방접종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설득에 직접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 11명·전남 4명, 코로나19 확산세 주춤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선 이날 오후 6시 현재 확진자 11명이 추가돼 누적 3908명을 기록했다. 서구 고등학교, 광산구의료기관, 태시도 방문 등 기존 확진자 관련이 6명이다. 나머지 5명은 유증상 검사자로 아직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광주에선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A씨가 확진된 데 이어 이날도 직원 B씨가 다른 감염 경로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난 17~19일 근무한 뒤 20일 하루 휴가를 냈다. A씨는 재판이 열리는 법정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

지만 광주교법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료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20명을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이들 2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가족이 확진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역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광복절 연휴 직후 하루 확진자가 34명이 쏟아졌으나 서서히 신규 확진자가 줄어 이를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7일 34명→18일 17명→19일 23명→20일 15명, 21일 9명→22일 10명→23일 9명→24일 오후 6시 현재 4명이다.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2475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권익위 선물 가액 조정 불가' 기류에 강력 반발

이개호 "농산물로 뇌물주지 않아...농어민 어려움 안중에도 없어" 비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농어민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드러내면서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물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요구의 뜻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전원위원회에서) 대부분 위원이 이번에도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청렴성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반인은 이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인 지난해 추석과 설 명절에는 농수축산물 업계를 돕고 내수 경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석까지 시행령을 고쳐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당량·함평·영광·장성)은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있던 자연재해 등으로 농수축산물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이러한 기조(가액 상향 불가)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농수축산물로 뇌물을 주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느냐. 농어민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가 농어민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국회 차원의 대응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과일의 경우 1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명절엔 소비되고, 축산물도 도축량이 명절엔 평일 대비 75% 증가한다. 명절에 농수축산물 대부분이 소비된다는 의미"라며 "권익위가 농어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文 대통령,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내정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김정희, 국토교통비서관 김이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들어와 국정기획

상황실, 기획비서관실에서 일했다. 김정희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37회) 출신으로, 산자부 미주통상과장·자동차조선과장·산업기술융합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을 역임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36회) 출신으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도시재생사업기획담당·정책기획관을 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투자, 하실분

- ▶ 덕남동, 빚고을 전대병원 인근
- ▶ 임야 661㎡(구 200평) 지분매매
- ▶ 장/단기 개발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000만원(평당 30만원)

중개환영. 010-3605-5000

<h3 style="font-size: 1.2em;">상가매매 (상무지구)</h3> <p>1) 40평(전용) 2억3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3천(용2억6천)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5억8천(용 3억6천) 월수익 280만(보4천)</p> <p style="font-size: 0.8em;">(사무실 리모델링, 바,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임주 시비없음)</p> <p style="font-size: 1.1em;">010-6670-9800</p>	<h3 style="font-size: 1.2em;">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총 1760평</p> <p>(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 style="font-size: 1.1em;">010-6670-9800</p>
--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대연이메프(이하"갑")와 주식회사 동해원기(이하"을")는 2021년 08월 24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소방산림공사사업 임원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고함.

2021년 08월 25일
"갑" 주식회사 대연이메프씨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47, 205호
(지평동, 스타타워)
대표이사 임선자
"을" 주식회사 동해원기
강원도 원주시 가원로 186, 1호(가원동)
대표이사 김원기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1년 08월 2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주식회사 청주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46
101동 1003호(신촌동, 대려수아파트)
청산인 김기원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약구독
(062)220-0550

주제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얼장 06:30 * 다음카페 광주지산악회 ☎ 010 7794 6920